

인류+디자인... 지속가능한 삶의 비전 제시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오는 7일 개막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5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휴머니티(HUMANITY)’를 통해 근본적인 디자인 가치와 역할을 탐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와 인류 공동체를 위한 디자인 비전을 제시한다. 올해는 주제관과 국제관, 기업관, 체험관, 산업관 등을 중심으로 한 본 전시와 특별전, 학술포럼, 이벤트 등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개막을 앞둔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참여작가와 작품, 전시 방향 등을 살펴본다.

오는 7일 시작... 55일 대장정 돌입
키스 미크로스 등 해외 유명 작가 참여
바우하우스 설립 100주년 의미 되새겨
‘아카이브전’... 디자인비엔날레 재조명

◆50개국 1천130명 작가 참여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는 ‘인간(Human)’과 ‘공동체(Community)’의 합성어인 ‘휴머니티(HUMANITY)’다.

디자인의 근본적 가치인 사람 중심의 사고와 인류 공통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와 혁신의 도구로서 디자인 역할에 대한 담론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본전시(주제관·국제관·기업관·체험관·산업관) ▲특별전 ▲학술 ▲교육 ▲이벤트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국내외 50여개국 작가 1천130여명이 참여해 600여개의 다채로운 디자인 작품을 선보인다. 지역에서도 43명의 작가가 182점의 작품을 내놓는다. 참여 기업들도 지역 72개 업체를 포함한 12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특히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헝가리 출신의 작가 키스 미크로스(Kiss Miklos)와 네덜란드 대표 디자이너 댄루스 가르데(Daan Roosegaarde) 등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들 작가들의 작품은 본전시 주제관 ‘커뮤니티(Community) 우리 안아주기’와 ‘소셜(Social) 함께 따뜻해지기’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바우하우스 정신 재조명

올해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국제관에서 현대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일컬어지는 바우하우스(BAUHAUS) 설립 100주년을 맞아 바우하우스 정신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함께 갖는다.

지난 1919년 설립된 바우하우스는 1933년 폐교되는 등 역사적으로 짧은 존속기간에도 불

구하고 세계 각국에 디자인의 개념과 교육이념이 널리 공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사회와 인간을 위한 디자인’과 그 맥락을 같이하며 올해 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인 휴머니티와 일맥상통한다.

이 자리에서는 14개팀의 크리에이티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바우하우스의 의미를 탐구한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강현선·김희원·안상수+PaTi·정보영+엠마누엘 울프스·이광호 등이다. 이들은 영상과 그래픽, 일러스트, 오브제, 텍스타일, 설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현재 바우하우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한국과 일본,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세계 22개국의 공동생활 프로젝트 모형을 새롭게 구성한 가상의 도시 형태를 구현한 전시도 마련된다. 해당 전시는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 협업해 이뤄졌다.

◆기술과 예술의 만남 ‘다체’

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삶의 감성과 디자인이 바라보는 기술과 휴머니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한국의 대표적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범민의 그래피티 작품이 함께 선보여져 주목된다. 범민은 붓 대신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는 도시적 자유로움의 상징적 작가다. 그는 기업관 ‘우리의 질문: 범민 그래피티’에서 작품을 인트로 공간에 조성해 ‘디자인은 삶을 디자인 한다’는 화두를 던진다.

또 3관 참여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 내용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 워트있게 그래피티 작품 안에 스며들게 전시한다.

국내 최대 가방 브랜드 루이까뜨와 한국 최고 명장 최중관 옷칠명장의 콜라보 작품도 선보인다. ‘자연과 함께 하는 기술: 일광전구, 루이까뜨, 모헤니, 헬리녹스’에서는 루이까뜨와 최명장이 콜라보한 ‘채화칠 플라보레이션’ 작품



헝가리 출신 작가 키스 미크로스 작 ‘Ball Room’

을 통해 우리 전통이아말로 미래를 살아가는 새로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를 휴머니티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리도 마련된다. ‘새로움에 도전하는 기술: 스튜디오 Woodth, NAPAL’에서는 1984년 최초 디자인부터 최근의 맥북까지, 디자인 속 숨겨진 인류애의 정신을 숨은 그림 찾듯 찾아보는 공간을 제공한다.

◆특별전 등도 풍성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7회동안 진행됐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재조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아카이브전’에서는 각 시대별 독립된 프레임의 구성을 통해 지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사료, 역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지난 행사의 총감독들의 인터뷰를 통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논한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국립광주과학관이 추석을 맞아 명절 연휴 기간인 12일부터 15일까지(13일 휴관) 한가위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프로그램 모습.

한가위에 가족과 함께 국립광주과학관으로

오는 12~15일 추석특별프로그램
달 관측·허벅지 씨름대회 등 다채
연휴 기간 상설전시관 무료입장도

■광주과학관 추석 특별 프로그램 ※13일 휴관

12일	●사물놀이 ●보름달 관측 ●보름달 망원경 만들기	●이백 허벅지씨름 대회 ●보름달 망원경 만들기
14일	●샌드아트 공연 ●염마 팔씨름 대회 ●클레이 추석음식 만들기 ●보름달 망원경 만들기	●구연동화
15일	●구연동화 ●제기차기 대회 ●보름달 망원경 만들기	●사이언스매직쇼 ●나만의 제기 만들기

풍성한 한가위 연휴, 국립광주과학관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색적 명절 나들이 장소로 거듭난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추석을 맞아 명절 연휴 기간인 12일부터 15일까지(13일 휴관) 한가위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별 프로그램 기간 동안 매일 펼쳐지는 전통 놀이마당에서는 세계 각국의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지구촌 민속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체험 마당에서는 매일 보름달 망원경 만들기, 14일 클레이 추석음식 만들기, 15일 나만의 제기 만들기 등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공연마당은 12일 사물놀이, 14일 샌드아트 공연, 14-15일 구연동화, 15일 사이언스매직

쇼 등이 진행된다. 가족단위로 관람객이 함께 토너먼트를 즐기는 대회마당도 한가위 흥을 더한다. 12일 이백 허벅지씨름 대회, 14일 염마 팔씨름 대회, 15일 온가족 제기차기 대회가 1-3위를 두고 펼쳐진다.

이벤트 마당에서는 매일 전시해설사와 함께 퀴즈 풀고 상품받기가 진행되며 3대가 함께 특별한 관람하고 달시계 만들기, 루체와 함께하는 가족사진 찍기, 한복 착용 관람객 우수특별전 무료입장, 12일 보름달 관측 등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상설전시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특히 달착륙 50주년 기념 국립과학관 공동 특별전 ‘우주로의 도전’을 오는 11일부터 진행, 새로운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김혜진기자 hj@srb.co.kr

남도가 가을날 낭만으로 ‘흠뻑’

아트플러스 146호 발간

무등일보 문화관광매거진 아트플러스 146호가 발행됐다.

이번호는 9월 가을을 맞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준비한 9~10월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을 여행 주간이 있는 9월과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아 진행되는 것으로 전시와 공연은 물론 강좌, 영화 관람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전시는 9월 시작하는 ‘공작인’부터 ACC문화상품 디자인 공모 수상작 전시까지 4가지의 전시가 진행된다. 공연은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브런치 콘서트는 물론, ACC 창·제작 어린이 공연, 추석 기간 재즈 콘서트 등이 꾸며진다. 특히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는 아시아 문화주간으로 포럼부터 영화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밖에 영화 상영, 다양



한 인문·초청강좌 등도 시민들을 만난다.

서울예술단의 대표 레파토리인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싣다’ 순천 공연과 남도문화 우수성을 담은 ‘대숲향 그윽한 별서정원, 담양 전, 무등현대미술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소식도 전한다. 이밖에도 목포문화제야행을 소개하며 여수에서 열리는 아시아안가스포츠챔피언십, ACC 공공미술 투어도 추천한다. 김혜진기자 hj@srb.co.kr

중장년 아마추어 연주자가 꾸미는 무대

금호시니어콘서트 3일 유·스퀘어문화관 앙상블·피아노·플루트 등 10팀 출연

제5회 금호시니어콘서트 3일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열린다. 금호시니어콘서트는 유·스퀘어 문화관이 만 40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의 연주활동을 지원하고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성악 6팀과 앙상블 2팀, 피아노 솔로, 플루트 솔로 등 총 10팀이 출연한다.

유·스퀘어 문화관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실력 있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신청자들은 주부, 회사원, 교사,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과 사연을 가진 연주자들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다르신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연주회를 준비하며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 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금호시니어콘서트 외에도 만 26세 이하 음악 전공자를 위한 금호시니어콘서트와 만 65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한 금호실버콘서트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연 관람료는 5천원이며 유·스퀘어 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2. 김혜진기자 hj@srb.co.kr